

2009년 가을 · 겨울호

초승달이 일구어 가는 복지공동체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부설기관

- 대구쪽방상담소
- 북한이주민지원센터
- 만평주민도서관

356-0465

356-3494~5

356-0463~4

356-0468

2009년 가을 · 겨울호 **촌놈들이 일구어 가는** 복지공동체



● 표지이야기 ●

“나비가 되는 그림 좀 그려주라~”
만평주민도서관 어린이회원 윤동민에게 부탁해서 받은 그림이다.
에벌레, 번데기를 거쳐 나비가 될 때까지 주변의 나무는 단풍도 들고 날아다니는 친구 나비들도 있고 나비는 혼자 나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살면서 만나는 많은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함께 있다. 그것은 설레이고 즐거움이다.

03 여는 시 변화 | 지민겸

04 여는 글 생각은 지구적으로 활동은 지역적으로 |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원장 윤승걸

05 심표 선물받기 도전 하나, 둘

함께한 나날들

06 법인의 지난 그림들 |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08 쪽방상담소의 지난 그림들 | 대구쪽방상담소

10 북한이주민지원센터의 지난 그림들 | 북한이주민지원센터

특집 현장 활동 파헤쳐 보기

12 사진으로 보는 만평주민도서관 | 만평주민도서관

14 하계연수. 진단. 우리는 지금 변하고 있는가? |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지민겸

15 NKP 천하무적 축구단 | 북한이주민지원센터 김창현

16 5W1H로 보는 1017빈곤철폐의 날, 반빈곤문화제 | 대구쪽방상담소

개발원 사람들

18 통일세상을 대비하며 | 북한이주민지원센터 허영철

19 초보신랑, 한방이 아빠 되다 | 대구쪽방상담소 사무국장 장민철

20 관심과 무관심의 차이 | 쪽방무료진료소 박남건

21 하계수련회를 다녀오고 변화의 주체가 된 나 | 회원 홍경우

2009희망 캠페인

22 쪽방촌의 긴 겨울, 나눔에서 답을 얻다.

함께해요

23 행사 일정소개

살림살이

24 법인 후원자 및 결산

25 북한 후원자 및 결산

26 쪽방 후원자 및 결산

사랑을 나눠주세요.

27 사랑을 나누는 방법들

발행일 2009년 11월
발행인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이사장 김 선
편집인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사무국
주 소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 3가 1371-6(우703-851)
Tel. 053/356-0465 Fax. 053/356-3496
홈페이지 <http://www.vongsa.org>

변화

지민겸

칠혹 같은 어둠 안에서
이놈,
삼 년을 버텼다
평생이다

동토凍土를 떠밀고 올라서는
봄날의 새순마냥
세상의 속도를 거스르고
세월을 밀치며 올라서는 너는,

제 날개에
시간의 뿌리를
검은 핏발로 새기면서
기어이 하늘까지 자라 올랐다

기억하라
와글거리는 매미의
벼락같은 울음 말고
삼 년을 걸어올라 하늘에 닿은
한 걸음 한 걸음
더딘 수고를 뿌리삼은 매미의 시간을

여린 살로
묵은 등 두겹 가르고
온 하늘을 부비며
어둠의 무게로 짓눌리던
제 몸을 놓아 준다

보지도
닿지도
들리지도 않았던
못내 꿈이던 온갖 하늘에

변화는 긴 기다림과 자신과의 싸움이다.

열흘의 짧은 삶을 위하여 3년이 넘는 시간을 견뎌 매미가 되는 굼벵이처럼 기나긴 자기극복의 과정을 거쳐 우리는 꿈꾸는 하늘에 닿는 것이다.

“생각은 지구적으로 활동은 지역적으로”

(사) 자원봉사능력개발원 원장 **윤승걸**



이제 다시 엄동설한의 계절이 눈앞에 다가왔다. 그 예전 추운겨울을 나려고 분주히 이것저것 월동준비를 하시던 부모님들의 모습이 아련히 떠오른다. 김장을 하고, 매주를 썰고, 연탄을 준비하고, 온가족의 내복과 겨울 이불을 준비하던 우리네 부모님들의 모습이 생각나는 것은 아마 지금 서민들이 겨울을 준비하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에서일거다.

특히 쪽방촌을 비롯한 저소득층의 겨울은 그야말로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니 만큼 그 절박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요즘 언론을 보면 많은 단체에서 연탄, 김장, 내복후원 등 갖가지 겨울철 사랑나누기 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모습을 자주 접할 수 있다.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소외된 이들이 있고, 이들에게 도움이 손길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쪽방촌의 겨울은 유난히 어렵다. 작년겨울 실태조사를 겸한 상품권지원을 할 때 겨울철 난방형태를 두루 살펴보니 쪽방거주인 80~90%정도가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모습을 보았다. 물론 연탄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연탄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대구지역의 900명에 달하는 쪽방거주인의 난방은 그야말로 불안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것이 겨울 나기 캠페인이다. 전기장판, 연탄보일러개체, 이불, 내복, 외투, 주거비지원, 쌀, 라면, 김장등 기본적으로 겨울을 날 수 있는 최소한의 품목을 기업, 종교단체, 봉사단체, 시민들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정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어려움을 호소하면 아마도 도와주는 이들이 곳곳에서 생겨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본다. 사람과 사람사이의 따뜻한 사랑과 정을 믿음으로...

다시 우리는 자원봉사능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의 모든 현장에 있다. 2009년 겨울을 맞이하고 새로운 2010년을 맞이하는 개발원은 현재 어떤 모습이며 어떻게 내년을 맞이해야 할까? 2009년 개발원은 많은 변화를 거듭해왔다. 하나센터를 개소하고, 만평주민도서관을 개관하고, 경북의 이주민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협동조합형태의 예비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이것은 단순히 외형을 넓히고자하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개발원의 많은 인자들이 그동안 사업내용을 통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하고 축적된 경험에서 나온 결과이므로 전적으로 그 동안 함께해온 개발원의 모든 식구들의 성과가 아닐까 생각된다. 단순한 한해의 계획이 아니라 향후 10년의 비전을 그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림. 비록 실패를 하더라도 과정 속에서 얻은 경험이 우리들에게 소중한 자산이 아닐까? 바람 앞에 촛불이 아니라 견고히 우뚝서있는 바위처럼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내용과 도전과 비전! 그 핵심에 개발원의 모든 식구가 있다. 이사, 운영위원, 회원, 봉사단체, 후원자, 직원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개발원이 가고자 하는 이 길에 다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가 않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할 것이 너무나 많다. 조금 더 사랑하기, 조금 더 공부하기, 조금 더 나누기, 조금 더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등 등 등...

결국 이 모든 것은 새로운 대안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적 가치와 통합에 대한 고민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나누고 풀어가고자 할 때 그 답이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요즘은 어느 지역 활동가가 한 말 중 “생각은 지구적으로 활동은 지역적으로”하자는 이 말이 개인적인 화두이자 실천의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면 개발원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화두는 무엇일까? 그리 거창하지 않아도 각자의 화두를 함께 녹여 내어 품어볼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지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기대해본다.

쉽표는 쉬어가는 꼭지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기대하셔도 좋을 상품받기에 도전해 보면서 바쁜 일상을 쉬어가세요!!

■ 선물받기 도전 하나, 퀴즈를 풀어 보세요!!

해	춘	공	책	날
빈	동	사	폐	지
랑	지	곤	친	구
축	합	놈	기	의
니	철	다	체	복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지우시고 남은 글씨를 조합하면 정답이 나옵니다.

- 1) 10월 17일은 UN이 정한 빈곤퇴치의 날이고 이 날을 ○○○○○○ ○이라고 부른다.
- 2)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은 ○○들이 일구어 가는 ○○○○○○이다.
- 3) 북한이주민지원센터에서는 남한친구들과 북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뒤통구는 NKPO○○경기를 매월 한다.
- 4) 만평주민도서관에서는 저학년 독서논술교실 ○과 ○○○○를 매주 월요일에 한다.

정답은 vongsas@hanmail.net로 보내주시거나 www.vongsas.org 자원봉사능력개발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비공개 글로 올려주세요. 기대하셔도 좋은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선물받기 도전 둘, 오늘 가장 맛있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친구야, 너는 빠리리해서 정말 맛있어. 그런데 지역의 소외된 분들과 손잡고 걷어가는 일에 동참하면 더 멋진 삶이 펼쳐질 거야. 함께하지 않을래?”

답변 1) 정말 멋진 친구라면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지 않고 동참한다.

* 정말 멋진 친구를 두셨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후원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FAX나 전화주세요.

답변 2) 좋은 일 하면 좋은데~ 내가 지금 여유가 없어서... 여유 생기면 할게.

* 한 달에 만 원씩 후원한다고 밥 안 굶거든~ 핀잔을 주세요^^

답변 3) 야! 나를 도와라!!

* 오랜 시간이 걸려도 잘 설득하실 후원자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법인의 지난 그림들



1. 7월24일 ~ 26일 하계연수: 이사진, 운영위원, 전 직원, 후원자와 함께 공기 좋고 조~용한, 뛰어 놀기 좋은 군위 동지학교에서 가진 하계연수! '변화의 주체가 되자! 그 후,'라는 주제 아래 우리 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처장님의 특강도 듣고, 현재의 법인과 나를 꾸짖고 다지는 시간도 가지고, 초등학생이 된 것 마냥 운동장에서 뛰어 놀기도 했다~^^ 우리 모두 변화의 주체가 되자!!

2. 8월 18일 도서관 개관식 : 모든 동네에는 동네 한 바퀴 돌면 만날 수 있는 주민도서관이 있어야 한다! 지역주민들과 소통이 부족하다!
고민 끝에 5월부터 만평주민도서관 개관을 준비했고 8월 18일 드디어 첫 선을 보였다. 많은 분들의 후원과 관심 속에, 우리 모두의 힘으로 만들어진 공간인 만큼 지역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 작은 공간에서 펼치는 큰 꿈!! 화이팅!!

3. 9월 23일 제 39차 이사회 : 8명의 이사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39차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사업보고와 법인발전방향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후원사업 강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4. 10월 9일 ~ 10월 12일 일본연수 : 컴퓨터, 집, 가족, 페이퍼.....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밤늦도록 이야기 하고 싶었다. 그래서 선택된 땅! 가까운 일본, 사실 말이 일본이지 3박4일 중 2박을 배안에서 보냈다. 하지만 일상의 지리함을 떨쳐버리고 끊임없이 웃고, 울고, 삶의 고민을 이야기하기에 충분했다. 일본에서 토해 낸 말들, 생각들을 이제 정리하고 풀어나갈 때다.

5. 9월 ~ 10월 수익사업 : 가난한 법인을 지탱하기 위한 길~! 올해도 어김없이 수익사업을 진행했다. 직접 안동에 가서 사과를 따고, 선별하고, 포장하고, 배달하고, 택배 보내고~ 늘 힘이 되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는 분들 덕분에 지난 해 보다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계획 중인 사회적 기업에도 많은 관심 부탁 드려요 ~^^

6. 특별위원회 모임 : 지금 법인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인직원, 운영위원 중심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각 단위 모임도 가졌다. 그 결과 부설기관의 독립과 자원봉사자교육, 연구기관운영 등 법인 사업 강화로 정리되었다. 움츠려 들었다가 뛰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촌놈 식구들 모두 각자의 위치를 잘 찾고 활동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쪽방상담소의 지난 그림들



1. 공동작업장 거제도 및 외도 나들이

공동작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과 거제도 및 외도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매일 답답한 작업장에서 나와 모처럼 바다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 흙서기 나들이 1탄 (경주 박물관 및 감은사지 및 감포 바닷가)

흙서기 나들이 2탄(청송군 달기약수터 및 안동 길안면 계곡)
쪽방에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흙서기 대비 폭염나기 예방 교육 실시로 행동요령 숙지 및 더위피해를 최소화 하고 반복적인 일상을 벗어나 여행을 즐겼습니다. 자존감회복 및 대인관계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3. 대구쪽방상담소 운영위원회

동절기를 대비하여 쪽방상담소 운영위원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쪽방거주인 및 재생위원 간담회

쪽방재생위원 및 입주자대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긴급서비스체계 및 정보접근성 강화 그리고 쪽방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강화를 위하여 많은 얘기들이 오고갔으며 이러한 모임을 통하여 조금씩 작은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5. 대구노숙인상담센터와 함께한 친선족구대회

햇살 좋은 7월 22일 대구노숙인상담지원센터 직원들과 노숙인, 그리고 쪽방상담소 직원과 쪽방거주인과 어우러져 친선 족구대회가 열렸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 몸도 마음도 지치지만 이러한 모임을 통해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고 오랫동안 운동으로 모두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6. 기초생활보장 상담사 교육

반빈곤네트워크, 민중행동에서 주관하는 한국기초생활보장 상담사 교육이 있었습니다.

쪽방상담소 최은경 간사, 전인규 간사, 박남건 간호사가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현장에서 풀어내면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7.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 워크숍

8월 20일~21일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 워크숍이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쪽방상담소 직원들이 모여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 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림을 그리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이러한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감으로써 하나 되는 쪽방상담소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8. 동대구 농협 아리봉사단 생필품 후원

2009년 추석을 맞이하여 동대구 농협 아리봉사단에서 생필품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과 지역사회 공헌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농협 아리봉사단으로 거듭 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 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서구지역위원회

추운 겨울을 대비하여 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서구지역위원회에서 연탄 및 난방유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작은 사랑이 모여서 큰 사랑이 되듯이 쪽방에 계시는 분들에게 마음속에 자그마한 사랑이 하나씩 커져갈 것입니다.



10. 영진전문대 사회봉사단 & 해바라기 봉사단이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담그기

11월 17일 ~ 19일 까지 해바라기 봉사단, 영진전문대 사회봉사단과 함께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했습니다. 쪽방에 계시는 분들에게 사랑의 김장을 나누어 드리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한 나날③

1. 8월18일~21일 산은 하계 캠프 진행



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좀 더 신나는 캠퍼스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계계절학교·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대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주민 대학생들에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실제 사회생활의 생생한 현장이

4. 9월15일 공동 모금회 간담회 (영어공부방)

공부하는 재미, 이야기하는 재미. 공동 모금회 토요일 영어공부방에 참석하는 교육생들과 영어공부방 강사선생님과



함께 영어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발전하는 영어공부방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북한이주민지원센터의 지난 그림들

2. 8월29일 영덕 나들이



공유하고 자연과의 어울림을 통한 심신회복을 위해 영덕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2009년 대구하사센터 수료생, 교육생들과 함께 화합과 휴식을 도모하고, 교육 수료 후 지역적응 과정에 대한 정보를

5. 9월26일 공동 모금회 간담회 (여성 북한이주민)

맛있는 수다 맛있는 수다 또래의 북한이주민 여성들과 함께 “내 사랑 내 곁에” 영화도 보고 맛있는 밥도 먹으면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동 모금회 새터민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3. 9월8일 지역적응교육생 사회문화체험 (클래식 공연 관람)



구나 한번쯤은 들어 본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어 북한이주민 분들이 오페라에 좀 더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오페라’ 하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티네 공연은 대다수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 본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어 북한이주민 분들이 오페라에 좀 더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6 ~ 8. 9월26일,27일 안동,구미,포항 한가위 큰잔치 / 9월30일 대구한가위 큰잔치(알리앙스)



려하여 대구·경북 북한이주민들과 함께 명절의 즐거움을 나누었습니다.

풍요와 결실의 계절 가을,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여 북한이주민지원센터(대구 하나센터)에서는 소박하지만 마음은 풍요로운 한가위 나눔 잔치를 마



9. 10월 2일 ~ 3일 추석명절 함께 보내기(재가방문)
한가위를 맞이하여 올해 대구로 전입오신 세대 방문이 있었습니다. 함께여서 즐거운 한가위 보냈습니다.

10. 10월 6일 자원봉사자 문화체험

수성아트피아 극단열전2009- 연희단 거리패의 <햄릿> 북한이주민지원센터에서 열심히 활동 중인 '소금회' 자원봉사단 문화체험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이주민지원센터와 북한이주민 분들을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1. 10월9일 하나센터 5기 수료생 볼링 체험



생활체육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하나센터 5기 졸업생들은 수료식을 마치고 볼링 체험을 하였습니다. 볼링공을 처음으로 만져 보는 북한이주민

분들은 공을 잡는 방법도 몰라 제대로 굴리지 못하던 모습에서 스트라이크를 넣는가 하면 개인지도도를 통해 수준급으로 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에 서로 환호성을 지르거나 손뼉을 마주치기도 하면서 모두들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12. 10월18일 공동모금회 간담회 (자원봉사활동) 나누는 행복 함께하는 즐거움..

평소 자원봉사에 많은 관심을 보인 북한이주민 분들과 함께 새로 정착하시는 신규전입세대 청소를 함께 하였습니다. 처음 대구에 왔을 때, 그리고 현재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뜻 깊은 공동모금회 새터민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13. 10월29일 공동모금회 간담회(북한이주민 청년) 남자들의 수다

학업중인 북한이주민 청년들이 뭉쳤다. 공부하면서 쌓인 스트레스와 남자들만의 의리를 공유 할 수 있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14. 매주 수, 금, 토요일 기초학문 교실

검정고시 준비생들을 위한 기초학문 교실이 감삼동 교육장에 있습니다. 검정고시를 위해 부족한 수학, 영어, 국사 공부를 하면서 내년에 있을 시험에 열의를 불 태우고 있습니다.



15. 매주 토요일 국어, 영어 공부방 진행

공동 모금회 영어 공부방, 산은사랑나눔 학습공부방이 감삼동 교육장에서 진행 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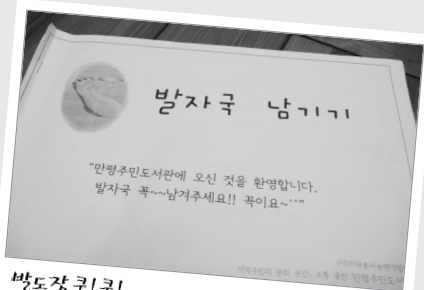
북한이주민 대학생들, 대학 준비생들이 모여서 학업에 부족한 국어, 영어 공부를 중심으로 대학생활에 보탬이 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만평주민도서관

만평주민도서관은 소통에 대한 오랜 고민과 3개월여의 다소 짧은 준비기간을 거쳐 8월 18일 문을 열었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도서관 문화 정착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지역 주민들의 소통 공간,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

그럼 지금부터 개관 후 도서관의 모습을 들여다볼까요?



발도장 쿵! 쿵!
도서관에 다녀간 친구들은 발도장을
꼭 남기고 갑니다.



저학년 독서논술, 책과 친해지기!
경택이, 민지, 민서, 동민이, 효영이,
은빈이 책이랑 많이 친해졌니?



생각보다 부~드러운 선생님과
멋진 사진 찍기를 배워요.



도서관에서 책 읽기는 기본이죠~!



“도레미파솔라시도~♪”
피아노 실력 뽐내보아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은
도서관에 피아노 선율이 넘
쳐나는 시간, 피아노 교실!



관장님과 함께 역사답사를~!



특별한 우리 도서관에서는
운동도 한답니다.



“아직 만평주민도서관을 모르신다
구요?” 어서와~~!!



만평 주민도서관! 지역의 모든 주민들과 소통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더 많은 홍보와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천천히, 천천히, 한 발짝, 한 발짝 변화되고 있는 도서관에서 우리가 만들어 갈 무한한 꿈이 자리한 공간을 상상해 본다.

(※ 문화강좌 접수 계속 받고 있습니다. 독서논술, 피아노 교실, 사진 강좌, 역사답사 신청 많이 해주세요.)

우리 도서관에 오면.

특별한 것 하나,

만평주민도서관에는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웃음 꽃 피울 수 있는 만평 찾집이 있어요~

특별한 것 둘, 만평주민도서관에는 바퀴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는 나눔가게가 있어요~

만평주민도서관이 더 궁금하다면,

카페에 놀러오세요~

다음 카페 검색창에서 '만평주민도서관'을 검색하시거나,

주소창에 <http://cafe.daum.net/manpyunglib> 를 입력하세요.



하계연수. 진단... 우리는 지금 변하고 있는가?

(사) 자원봉사능력개발원 지민겸

‘변화의 주체가 되자. 그 후...’라는 주제로 군위 동지학교에서 2009년 하계연수를 열었다. 여름 날씨 답지 않게 하늘은 구렸고 차 세 대에 나눠 타고 출발하자 비가 오기 시작했다. ‘오히려 잘 됐네. 에어컨도 없는데 더운 것 보다 낫다.’며 이리면서 도착한 동지학교는 폐교다운(?) 위용을 자랑하며 우리를 맞아주었고 분주하게 여기저기 일정표를 붙이고 연수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2박3일의 하계연수는 시작되었다.

작년 연수의 주제가 ‘변화의 주체가 되자.’였으니 지금의 시점에서 ‘그 후’를 돌아보는 것이 적절할 터이고 자원봉사능력개발원이 주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음을 직감하고 다들 진지하게 ‘난상토론’과 프로그램에 임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복지현장에서 가져야 할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로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님의 특강을 들었다. 지역 복지현안과 전망에 대해 소개받고, 더불어 법인이 소외된 지역민과 함께 함에 있어 어떻게 현재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시간이 지나고 길고 긴 여름 해가 기울자 동지학교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법인의 이사회 분들, 후원자 분들과 그 가족들, 운영위원들... 저녁이 되자 다시 ‘난상토론 제 2탄!!’은 시작되었고 이런저런 의견과 조금은 감정 섞인 말들도 오갔지만 ‘변화의 지점’에 대한 우려와 견해는 언제나 격렬한 것 아닌가?



밤이 깊어지고 논의는 더욱 심화되고 조금은 가라앉았던 분위기를 간직한 채로 결론을 유보하고 첫 날의 밤은 더욱 깊어갔다. 풀벌레들, 모기들, 각종 날벌레와 불나방들이 자신들의 터전에 발 들여 놓은 우리들을 몹시도 반기는 그날 밤 우리들은 가벼운 음주와 음

식으로 다시 평온해졌고 여름밤과 함께 각자의 ‘변화’를 곱씹으며 두 번째 날을 맞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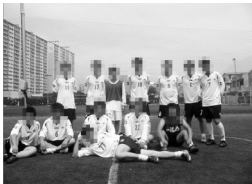
둘째 날은 활기찼다. 적당히 찌푸린 날씨가 오히려 제법 상쾌했고 여름의 한 가운데를 관통하는 시절답게 모든 생명들은 힘이 넘쳤다. 직원들 뿐 아니라 후원가족들과 운영위원들까지 가세하여 법인의 하계연수는 ‘변화’라는 중차대한 문제들을 짚어지기도 유쾌하고 발랄했다. 가벼운 운동과 게임들로 땀을 흘리고 뛰고 자빠지고 뒹구는 사이 모두들 서로에게 활기를 나누어주었다. 근처 강가로 내려간 우리들은 여름임에도 쌀쌀한 날씨 덕분에 잠시 강물에 살짝 인사만 하고 라면 끓여먹고 피가 끓는 사람들이 물놀이 하는 것을 구경하다 돌아왔다.

저녁에는 ‘만평주민도서관’ 정용태 관장님의 도서관 진행경과에 관한 강의를 들으며 사업 전반에 관한 내용을 공유했다. 마지막 ‘난상토론’ ‘변화의 주체가 되자...그 후’라는 주제 아래 당면한 법인의 전환기를 우리 모두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로 마무리 하며 하계연수에 참여한 자원봉사능력개발원의 모든 구성원들은 여름밤의 열기 속에서 삼겹살을 굽고, 마음으로 기울이는 술잔을 서로에게 권하며 마지막 날이 저무는 것을 자축하였다. 하계연수가 꿈처럼 지나가고 4개월이 흘러가는 지금... 우리들은 변하고 있을까? ‘변화’란 지금의 모습과 다른 발전된 모습을 말하지만 동시에 지켜야 할 것들을 오롯이 지켜내는 결기도 포함된다. 우리 모두에게 물어야 할 것 같다. “지금 당신은 지켜야 할 것들을 잘 지켜내면서 변화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의 변화도 없습니다.”



NKP 천하무적 축구단!

북한이주민지원센터 김창현



NKP.. 작년 봄부터 시작하여 지금 매월 1회씩 남북한 청년들이 모여 풋살, 축구경기를 하고 있는 모임이다. 지난 2008년 5월 축구를 좋아하는 북한이주민 4명, 남한청년 4명으로 풋살이란 게임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축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인원이 적어 어쩔 수 없이 풋살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모두들 처음 하는 게임이라 규칙도 모르고 작은 공간에서 무조건 뛰기만 하는... 공을 차는 게 아닌 무조건 뛰어 다니는 것이었다. 남한 친구들은 축구복장에 축구화까지 신고 오는데 우리 북한 친구들은 청바지에 구두를 신고 온 친구도 있었고, 편안하게 왔는데 남한 친구들을 보고 나서 공을 아주 잘 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가 죽어 있었다. 공을 제대로 차본 경험도 없었고, 그저 하나원에 있는 동안 공 차본 게 전부인 이들에게 남한 친구들의 모습은 무슨 축구 선수들로 보였던 모양이다. 막상 경기가 시작되고 공을 차보니 실력은 서로 서로 비슷하고, 서로 경쟁심이 생겨 축구라기보다 무조건 뛰기만 하는 그런 경기가 되어 버렸다. 한 달 한 달 공을 차면서 이전의 그런 경쟁심들은 서로 사라지고 조금씩 재미를 느끼게 되었다.

풋살로 시작했던 모임이 어느덧 축구 경기를 진행할 수 있을 만큼의 인원이 모였을 때 우리도 유니폼도 맞추고 공식적인 팀을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NKP란 이름이 지어졌다.

“NKP란 무슨 뜻이에요?” 란 물음에 선뜻 대답하기가 힘들 때가 많다. 축구를 하겠다고 모여서 팀명을 만들

어야겠는데... 어떤 이름이 좋을지 고민하다가 ‘남북한 사람들’이란 뜻을 영어로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 누군가 “북한은 North 고 한국은 Korea 이니까 People를 붙여 NKP가 어때?”라는 물음에 모두들 아무 생각 없이 뭔가 있어 보여서 팀 이름이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 콩글리쉬인데.. South and North Korea People의 SNKP가 되었어야 했는데... 그땐 왜 그런 생각을 못해봤는지... 첫 유니폼을 건네받고 사기가 하늘까지 치솟고 있을 때 다른 팀과의 시합이 주선 되었다. 시합에 앞서 모 초등학교에서 모여 몸도 풀고, 발도 맞추고, 다른 팀과의 연습에서 이기게 되어 시합에서도 이길 수 있겠다는 자신감들이 있었다. 시합 날 모두들 열심히 뛰었다지만 점수 차는 4 : 1, 5 : 1, 6 : 1 경기를 할수록 점수 차는 더욱더 벌어졌다. 첫 술에 배부를 일 없지만 자신감을 땅바닥을 치고 있었다. 두 달 후 다시 시합이 진행되었지만 이번엔 7 : 0 패배.. 갑자기 모 방송국에서 하고 있는 천하무적 야구단이 생각나는 건 왜일까? 비록 경기에서 큰 점수 차로 지고 경기를 치를수록 우리가 오합지졸에 형편없다고 느끼지만 공을 칠 때만큼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는 ‘축구’라는 경기를 통해 하나의 공동체란 희망을 보여주고자 한다.

★NKP와 함께할 팀원을 찾습니다.

★NKP를 도와주실 후원자분들을 찾습니다.

아직까지 축구화가 없어 운동화로 공을 차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축구화를 지원해 줄 분들은 연락주세요~

☎문의전화 053-356-0464

북한이주민지원센터 간사 김 창 현

5W1H로 보는 1017빈곤철폐의 날,

Who

반빈곤네트워크와 연대단체 중 하나인 대구쪽방상담소 실무자들과 관심 있는 사람들이

반빈곤네트워크는 가난이 개인의 부족함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되는 날,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난을 넘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날, 그 날을 향한 대구지역의 연대단체이다.

When

10월 17일 UN이 정한 빈곤퇴치의 날, 그러나 우리는 빈곤이 질병처럼 '퇴치'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힘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빈곤 '철폐'의 날이라고 부르는 날에,

UN은 절대빈곤과 기아를 대폭 감소할 것을 결의하며 10월 17일을 빈곤퇴치의 날로 정했다. 그 결의에 따라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빈곤은 여전하다.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절대빈곤층이 10억 명에 달하고, 한국의 경우도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절대빈곤인구가 10%에 육박하고, 중위소득 50%이하인 상대빈곤인구는 15%에 달한다.

Where

토요일 저녁이라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대구시내 2·28공원 안에서

관심있는 시민 몇몇과 실무자 몇몇과 공연 참가팀 몇몇과 지나가는 시민들의 '뭐하는 거야?' 라는 힐끔거리는 눈빛을 받으며 우리는 2·28공원 안에서 1시간 30분 동안 반 빈곤 문화제를 진행했다.

What

빈곤철폐의 날, 반빈곤문화제를

이 자리에서 우리는 시민들에게 빈곤이 오롯이 개인적 잘못이며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임을 알렸다.

이 자리가 절대적 빈곤의 문제뿐만 아니라 양극화의 문제가 심화 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인한 박탈감을 느끼는 많은 서민층들이 힘을 모아 권력과 권리를 찾는 일에 손잡는 자리가 되길 바랐다.

반빈곤문화제

How
요~~렇게



반 빈곤 문화제 '가난한 이들에게 힘을! 우리도 살자!'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허름한 거리, 방안에 널려 있는 양말 두 쪽,
좁은 방에 여기저기 쌓인 고물들.....쪽방사진
을 전시하고



"오늘은 빈곤철폐의 날 입니다!
읽어 봐주세요." 선전물을 나누고



극단 '함께 사는 세상'의
집이야기 공연도 보고



연대를 위한 노래모임
좋은 친구들의 노래도
듣고

Why

오늘을 우리의 날로 만들기 위하여

대부분의 서민층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사는 고민을 떨칠 수 없고, 일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고, 복지예산은 사실상 감축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1017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반 빈곤 문화제를 열었다.

『먹고 살기 바쁘고, 놀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쁘고..... 다들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날 만큼은 지리한 일상에서 벗어나 반 빈곤 문화제를 즐기고, 빈곤을 양산해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랐다. 하지만 관심 있는 몇몇 사람만 모여서 조촐하게 진행된 이 자리가 아쉽다.

내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 가까운 일, 혹은 내 문제임을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간단한 거리 상담이나 몸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부스 설치 등 더 탄탄한 준비로 함께 손잡고 가는 친구들이 늘어나길 기대해 본다.』

통일세상을 대비하며

우리 단체가 북한이주민사업을 진행한지도 벌써 횡수로 7년째 입니다. 처음 지역사회에 130여명의 북한이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만으로 무모하게(?) 뛰어든 사업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역사회 북한이주민들의 소중한 벗이 되겠다는 바람만으로 열심히 살아와 이제는 외형적으로도 많이 성장하였고, 통일부 지역적응센터의 시범지역으로 선정 되어 하나센터를 부설로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은 북한이주민 사업부분의 독립화 추진과 경북지역의 독립을 추진하고 있는 또 한 번의 큰 변화의 시점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늘어나는 업무들로 인해 실무진들이 많이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조직의 변화와 실무진들의 소진감 속에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가야할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주민들과 함께 그들의 아픔과 힘든 적응의 과정에 우리가 소중한 도구가 되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 속에 우리는 변화와 위기의 순간 속에 흐트러지지 않고 정도를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왜 북한이주민들과 함께 가야 하는지, 왜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 끊임없이 사회와 내 자신에게 물어보고 물어보아야 우리는 지역사회와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사업의 정당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화자찬일지는 모르지만 저의 생각에 우리법인은 지역사회에 아주 소중한 조직입니다. 감히, 지역사회의 오아시스라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도우려는 단체가 나서지 않았던 쪽방거주인 사업, 또한 그 누구도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북한이주민 사업, 그리고 새롭게 조금씩 시작 하고 있는 다문화 사업, 틈틈이 참여하였던 대북 연탄지원 사업까지... 우리 단체는 이러한 점들로 인해 가장 생명력 있는 단체라 자부합니다.

그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공동체, 조직의 외형적 성장에 욕심내지 않는 단체, 다가올 미래사회와 통일 후의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느낄 때 조금은 작은 단체라 힘들고, 재정을 모으기가 어려워서 힘은 들지만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너무나 소중한 일을 묵묵히 진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소중한 후원을 끊임없이 해주시는 후원자 여러분, 이사과 운영위원의 직분으로 수고해주시는 법인 이사님들과 각 기관 운영위원님들, 묵묵히 저희 단체를 통해 자원봉사의 소중한 손길을 나누어 주시는 자원봉사자 선생님들, 그리고 소진과 과중한 업무를 짊어지면서도 하늘 한 번 보고 술 한 잔 나누며 웃으며 살아가고 있는 직원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서,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아름다운 통일세상을 대비하며 이 변화와 위기를 당당하게 이겨나갔으면 합니다.

자원봉사능력개발원 화이팅!!!



허영철
북한이주민지원센터 소장



초보신랑, 한방이 아빠 되다.

시월의 마지막 날!!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부랴 부랴 떠난 허니문. 돌아와서 둘이서 시작한 신혼생활. 부모님이 해 주던 밥 먹고, 빨아주던 옷 입고, 아침마다 깨워주고 하다가, 이제 그런 것 없이 우리 둘이 해야 하는 하루하루가 벌써 2주가 흘러가고 있다.

행하던 집이 조금씩 사람 사는 집처럼 변해가고 들여놓은 물건들에 손때가 약간씩 입힐 무렵에 우리 부부의 인생에 노크를 해 오는 존재가 생겨났다.

아기가 생겼다.

둘 다 생각하지 못한 건지, 생각이 짧았던 건지 흔히들 말하는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다.

혹자들은 그 시기를 의심하였지만, 하늘을 우러러 단, 단, 한 점 조차도 부끄럼이 없음을 다시 밝힌다... ㅎㅎ

주위에서는 오랜만에 본 허니문 베이비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우리 부부의 동의도 없이 손수 아이의 태명을 지어주는 성의까지 보였었다. 아이의 태명은 '한방이'. 허니문베이비를 뜻하는 의미려니 하고, 우리 부부도 당분간은 '한방이'로 부르기로 했다. 예비아빠가 된 기분이란 참 묘하다. 아이가 생긴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기대감, 부모님들이 기뻐하실 모습들. 반면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들만을 위한 삶에서 아이를 위한 삶으로의 변화, 양육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의 변화 등등 아직 그 기분이 정리되지 않고 멍하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

분명 그 무엇보다 큰 기쁨이 있지만, 아이를 통해 보여 지는 우리 삶의 모습들 중 한 번쯤 고민해 봐야할 모습들 또한 떠올려 본다.

- 요즘 행복하냐는 뜬금없는 질문에 '퇴근해서 아이 얼굴 볼 때는 행복하다는 친구의 말..'
- 애기가 아파서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을 가슴 속에 한 가득 안고 조퇴를 하는 여자 동료의 모습들..
- 똑같이 일하고 애 키우는데, 왜 아이가 아프거나 일이 생기면 여자가 더 죄인처럼 느껴야 하느냐는 푸념의 얘기들...
- 직장생활의 연장이라고 하는 회식에서 아빠는

끝까지 남으면서도, 엄마는 아이를 돌봐주는 부모님들에 대한 미안함에 먼저 일어서야하던 모습들..

- 맞벌이 부부들에겐 어린이 집 방학이 제일 싫다며, 어쩔 수 없이 그 때 여름휴가를 잡는 모습들..
- 몇 만원 짜리 장난감이 비싸서 못 사주고 있는데, TV에서는 몇 십 만원 하는 장난감이 유행하고 있다는 얘기들..
- 영어조기교육비로 백만원이 훨씬 넘는 비용을 지출을 하며,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하소연하는 부모들의 모습들..

총각 시절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고 귀에 잘 들리지 않던 이런 얘기들이 요즘은 너무 가슴에 와 닿는다. 이런 일들이 나에게도 곧 오겠지? 하는 생각에 걱정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해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노력해서 잘 해결해야지 하며 새롭게 마음을 먹어본다. 좀 더 일찍 일어나고, 좀 더 일찍 퇴근해서 가정 일 돕고, 조금 더 아껴 쓰고 하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위로하며 말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정책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야?' 하는 웬지 모를 분함도 든다. 요즘 라디오와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공익광고가 '애 많이 낳아라'는 얘기다. 그러나 피부에 와 닿는 제도나 정책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그 애기는 '애 많이 낳아라, 단 알아서 키워야 되요. 국가에서는 그다지 도움은 못줍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죠?' 라는 애기의 줄임말 같이 들린다. 서민, 중산층들이 교육비(특히 사교육비), 양육비 걱정 없이(없는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좀 줄일 수 있을 정도만이라도) 아이를 키울 수 있을 정도는 되고 난 후에, 그러한 광고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애기가 계속 누군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푸념만 늘어놓는 거 같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난 뭘 해야 할까? 고민해 보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래도 우선 생각이 나는 것은 '일단은 내가 좀 더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 저녁엔 집에 가서 양육관련 카페를 찾아서 가입해야겠다. 이왕이면 달서구 모임에 가입하면 더 좋겠다. ㅎㅎㅎ



장민철
대구쪽방상담소 사무국장

- 7월 1일(수) 10:30~12:00 삶에서 도서관의 의미 (시인 김용락)
- 7월 8일(수) 10:00~17:00 눈으로 배우는 역사답사 (도서관장 정용태)
* 경주 차정-양산재-오릉
- 7월 15일(수) 10:30~12:00 지역주민도서관의 의의와 역할 (논술강사 조현정)



관심과 무관심의 차이

쪽방과의 인연도 1년이 되어 가네요.

쪽방에 관해선 언젠가 TV속에서 스쳤던 기억밖에 없어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기억으로 “어, 저런 곳도 있네.” 하고 지나쳐 버린 프로그램이었는데 내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 있다는게 신기하기도 하지만 나 스스로가 세상에 참 무지했구나, 아니 무관심 했다는 표현이 어찌면 더 맞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게 있어 쪽방 진료소 근무는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라고 해야 하는 동시에 누구나 아플 수는 있지만 누구나 병원을 이용하지는 못하는구나 싶어 가끔은 아픈 것도 죄가 되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공공 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향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데 아직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한 걸까요? 민영의료화 바람이 불면 기본적인 사향마저 더 멀어지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진료소 내원하신 아저씨 중에 한 쪽 팔등에 화상을 입으시고 진료비 부담으로 병원치료를 받지 않으시고 10일이 지나셔야 진료소를 찾으셨던 분이 계십니다.

건강보험 환자지만 진료비가 부담스러워 가지 못하고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하셨다고 너무나 무덤덤하게 말씀하시서 저를 놀라게 만들었던 아저씨.

이 아저씨 한 분만의 일은 아님을 알기에 더 서글퍼지고 이 분들에게 과연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제가 쪽방에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제게 반문해봅니다. 답은 “NO” 라고 말을 하네요.

그냥 TV 프로그램에서 잠시 스친 기억으로만 남아있었겠죠.

제가 꼭 이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라 “관심과 무관심의 차이”는 아니었는지 생각해봅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그 분들에게는 희망이라는 이름일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관심이 더 필요한 계절이 다가오네요.

올 겨울은 신종플루로 더 걱정되는 한 해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리라 기대해봅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더 바빠지는 우리 직원들. 아자! 아자! 파이팅이며, 사랑합니다.



박남건
쪽방 진료소

* 쪽방무료진료소는 쪽방거주인 · 노숙인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과 의약소모품을 후원 받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변화의 주체가 되자!” 그 후,

— 난상토론 속에서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정답 —

일시 : 2009년 7월 24일(금) ~ 26일(일) / 장소



하계수련회를 다녀오고 변화의 주체가 된 나

저는 동변초등학교 6학년 홍경우입니다. 아버지의 권유로 자원봉사능력개발원 식구들과 회원 분들을 하계연수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녁 늦게 도착한 동지학교는 너무 낯설고 시설도 열악해서 실망했습니다. 처음에는 2박 3일 동안 전혀 모르는 선생님들과 어떻게 지낼까 고민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속에서 따뜻함과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라 나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불편함을 먼저 챙겨주시는 선생님들이 있어 자연스럽게 여러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조별로 식사 당번도 정해서 참여하게 해주시고 청소며 각자 할 일들을 만들어주셔서 더 빨리 선생님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전종민샘이 형처럼 더 많이 챙겨주어서 좋았습니다.

2박 3일 동안 여러 선생님들이 탁구도 가르쳐 주시고 저녁엔 영화도 보고 또 난상토론이란 것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변화의 주체가 되자! 그 후’라는 이번 하계연수의 주제처럼 저도 조금씩 조금씩 개발원 식구들과 함께 동화되고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단어들 새터민, 북한이주민센터, 쪽방상담소 등은 저에게 궁금증을 유발시켰고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차 속에서 개발원에서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부모님께 물어도 보고 또 그런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 보는 사람들과 어색한 것이 싫어서 불편한 자리는 피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하계연수를 다녀오고부터는 내게 조그마한 변화들이 생활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부모님과 나들이 갈 때 소극적으로 따라다녔지만 이번 남해 가족여행 갈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 장소에서 즐겁게 놀다왔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조금 불편한 시간들이 지나면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사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주의적이었던 성격도 남을 먼저 배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원 식구들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부모님께서 자원봉사활동 이야기며 만평주민도서관 이야기 등을 하셔도 부모님이 하시는 일로 생각했고 사실은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수를 다녀오고부터는 사회복지사업에 관심도 가지게 되었고 부모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과 함께 새터민 식구들과 풋살경기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도 빨리 친해질 수 있는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요즘은 사회복지관련 공부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하계연수로 인해 참 많은 변화들이 생기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관심분야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겨울에는 부모님과 함께 연탄 나눔 사업에도 참여하려고 합니다. 아직 전 어리지만 부모님을 통해 알게 된 개발원 덕분에 사회복지 쪽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 주위에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도 자원봉사활동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개발원에 가는 것도 즐겁고 여러 선생님들과도 아주 많이 친하게 지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홍경우

추운 겨울이 쪽방촌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막장 쪽방촌,
죽음 이후까지도 혼자

쪽방촌, 켜켜이 쌓인 죽음의 그림자
'쪽방촌'의 문제는 화재 위험만이 아니다

쪽방촌·노숙인
“이 겨울 또 어떻게 보내나”

뉴스조차 되지 못한 9인의 죽음

『쪽방촌 사람들은 뜨거운 여름에 이어, 추운 겨울도 난방시설·개인취사·온수시설이 전혀 되지 않은 2평 남짓의 공간에서 오로지 자신의 체온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야한다. 그러다 추위에 못 이겨 죽음을 맞고, 죽음을 선택한다.』

쪽방촌의 긴 겨울, 나눔에서 답을 얻다.

- 동네의 나누기 / 전기장판 나누기

내의를 입으면 체감온도 3도가 쑥! 올라간다. 난방비 절약을 위해 겨울철 내의 입기에 동참하고 쪽방 거주인에게 동네의를 후원하자!!

쪽방촌에서는 겨울철, 기름보일러를 켜는 일이 없고 도시가스는 설치비 엄두도 못 내며 그나마 연탄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는 집은 다행이다. 코끝이 시린 쪽방촌에 따뜻한 전기장판을 후원하자!!



- 쌀, 라면, 김장 나누기

쪽방거주인은 대부분 일용직(일명 노가다) 일을 하신다. 요즘 일이 없어 일주일에 하루 일하기가 힘들지만 겨울철에는 그 일도 없어서 생계에 어려움이 많다. 쌀, 라면, 김장 등 먹거리를 후원하자!!

- 주거비 지원

쪽방촌은 그래도 차디찬 바람을 피해 몸을 누일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방세가 밀려서 추운 겨울 거리로 나가야하는 사람들이 있다. 추운 겨울에도 거리에서 잠을 자야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 달 쪽방 월세는 15만원 ~ 20만원이다. 주거비를 후원하자!!

- 연탄보일러 개체비 지원

연탄은 기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난방방법이고 현재 연탄 후원은 나름대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기름보일러를 사용할 엄두를 못내는 분들에게 연탄보일러 개체비를 후원하자!!

『쪽방촌의 긴 겨울은 작은 힘이 모여 '희망겨울'로 한방에 이겨낼 수 있다.

성금 다가온 올 겨울에는 따뜻한 사람들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모여 가슴 아픈 신문 기사를 접하지 않았으면 한다.』

*기꺼이 마음을 내어 주실 후원자님은 대구쪽방상담소(053-356-3494)로 연락주시거나 홈페이지 www.vongsa.org에 글을 남겨주세요.



11월~12월 일정

자원봉사능력개발원 일정

- ▷ 12월 중 : 송년의 밤
- ▷ 12월 중 : 도서관 식구들과 결연사업 참여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답사
- ▷ 12월 중 : 제 40차 이사회 개최

만평주민도서관 일정

- ▷ 11월 30일 : 저학년 독서논술 '책과 친해
지기' 종강파티
 - 장소 : 만평주민도서관
 - 내용 : 마지막 수업과 자료집 전달

- ▷ 12월 : 겨울방학 강좌 수강생 모집
 - 고학년 독서논술, 저학년 독서논술, 눈으
로 배우는 역사답사, 피아노 교실

대구쪽방상담소 일정

- ▷ 11월 중 : 쪽방실태조사

- ▷ 12월 8일 : 쪽방입주자대표 모임 간담회
- ▷ 12월 15일 : 쪽방거주인의 밤
- ▷ 12월 21일 ~ 23일 : 반 빈곤 활동
- ▷ 12월 22일 : 노숙인 추모제
- ▷ 12월 ~ : 삼성 동절기지원 사업(위문품
전달)
- ▷ 11월~1월 : 2009 희망캠페인 '쪽방촌의 긴
겨울, 나눔에서 답을 얻다.'
- ▷ 정기 회의 : 주거난방대책위 활동, 전국쪽
방상담소협의회모임, 반빈곤
네트워크 활동

북한이주민지원센터 일정

- ▷ 11월 25일 : "북한이탈주민 여성, 청소년
의 남한사회 적응과 지원방
안" 경상북도 세미나
- ▷ 12월 12일 : NKP 축구팀 창단식
- ▷ 12월 중 : 공동 모금회 새터민 간담회
- ▷ 매주 수, 금, 토 - 기초학문 교실, 수학, 국
어, 국사, 영어 공부방 진행

* 고맙습니다

자원봉사능력개발원 & 만평주민도서관
(2009.7.1~2009.10.31)

작은 마음 나누어

큰 보탬을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든든한 후원자>

강정우	고희림	곽종문	구본민	구소라	김건함	김광미	김규학	김동국	김명준
김민철	김병길	김병덕	김 선	김세련	김수정	김승기	김시승	김애화	김윤정
김정아	김종태	김정호	김종태	김진국	김철민	김현애	김형섭	김형조	김혜민
남기정	노진영	도교현	박미숙	박상우	박수진	박애선	박일숙	박정규	배지영
배혜정	서상인	서상화	서희용	성동건	손영자	송광용	양선현	여상희	오메삭
원영숙	원종구	유태영	윤대기	윤석권	윤승걸	윤중곤	은재식	은현숙	이경란
이광진	이권성	이권우	이대명	이동인	이미경	이상미	이세아	이수연	이정배
이정화	이진경	이진우	이찬상	이창현	이철희	이현선	이현정	장대환	장민철
장익주	전미경	전인규	전정옥	정미영	정용태	정은찬	정현오	조경락	조상호
조은정	조재희	조준우	조현정	주성민	지민겸	천영식	최기훈	최명순	최순자
최은경	최은지	추연재	태진철	함석호	허영길	허영철	홍창영	홍혜옥	황경진
황선연	김영숙A	김영숙B	민주평통	정인유치원	(주)혜성광학				

<이사회비>

김 선 김영달 김영대 노경숙 신경목 윤승걸 윤 영 이경재 이상동

<만평주민도서관>

김시승 김용락 남기정 박근식 박애선 서인찬 성동건 손소희 신창섭 시정기
윤영희 이승환 이창현 전정옥 정만진 최재웅 고진용(웅진씽크빅) 이석형(도시가스)
만평나눔장터 대구참여연대 별을 가꾸는 사람들 산보연 우드맥 아름다운재단
인권운동연대 인터파크 GS칼텍스 진보신당대구시당

<만평나눔가게>

강정우 김병덕 박애선 배상희 백철기 은현숙 장민철 전인규 정영길 정효진
조재희 조현정 조남이 지숙희 청곡복지관

이 외 대리운전 이용과 수익사업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큰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렸습니다.

수 입			지 출		
합 계		35,800,701	합 계		35,800,701
회비수입	일반회비	394,000	사무비	인건비	6,727,200
	cms회비	5,905,000		운영비	6,927,140
	특별회비	16,644,733		업무추진비	1,363,300
	소계	22,943,733		소계	15,017,640
사업비	만평주민도서관	3,778,100	사업비	교육훈련 사업	2,352,740
	소계	3,778,100		출판홍보 사업	925,000
이월금	6월 이월금	74,788		조직연대 사업	468,000
	예금이자수익	-		자원봉사 사업	142,000
잡수입	기타 잡수익	9,004,080		주민도서관 사업	3,910,960
				후원의 밤 행사	100,000
전출금				수익사업	600,650
				소계	8,499,350
				북한이주민지원센터	5,861,440
				대구쪽방상담소	3,506,000
잡지출			전출금	만평주민도서관	840,000
				기타	600,000
				소계	10,807,440
			잡지출	잡지출	-
			잔액	잔액	1,476,271

* 고맙습니다

북한이주민지원센터
(2009.7.1~2009.10.31)

〈돈전한 후원자〉

강경점 강명숙 강상호 강정우 강지윤 강현숙 구봉주 권기태 권오현 김기현
김경민 김경신 김경호 김목유 김민경 김병진 김선경 김선왕 김성희 김순득
김순복 김영문 김영진 김원태 김은희 김종식 김종훈 김진석 김정률 김창현
김학수 김현미 김현애 남기정 박대근 박수선 박연경 박영란 박종무 박종웅
박주이 박지은 서재희 서영애 신경목 신미경 여은상 오매삭 오수경 오현숙
유영학 유재영 윤동수 윤명식 이강혁 이경미 이경희 이광운 이광호 이기도
이동원 이무연 이미영 이상록 이선미 이성윤 이영미 이은희 이의석 이준호
이창현 이필순 이혁수 이현중 이화정 임정숙 임호산 장미정 장민철 장연상
장진영 정미정 제완태 정상걸 정지균 조대성 조은주 조재희 조현정 주은경
진성준 채민수 채영주 최경호 최선미 최세호 최은경 최인식 최진웅 최태성
최태찬 최해수 최효정 표현경 허영철 허지향 허진욱 현태숙 홍창영 황성은
황종구 이마트영수증 후원 제일교회10여전도회 영남대IVF
대한의원내과의사회 대구·경북지회, 대구시 자치행정과, 통일정책연구회

〈물품후원〉

민들레봉사단 성낙인 김성현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후원자분들이 저희 북한이주민지원센터를 끌고 가는 밑거름입니다.

수 입			지 출		
합 계		193,183,146	합 계		193,183,146
보조금	정착도우미사업	22,645,370	사무비	인건비	19,063,037
	공동모금회제안기획사업	4,000,000		운영비	6,303,630
	대구시 조례	2,000,000		업무추진비	5,100,000
	노동부 민간협력사업	15,600,000		소 계	30,466,667
	지역적응교육 센터	71,500,000	사업비	출판홍보비	300,000
	새터민정보화교육사업	2,000,000		정착도우미 사업	17,970,000
	연대사업(무지개쿨)	260,000		공동모금회 제안기획사업	6,957,100
	소 계	28,645,370		산은사랑나눔	10,245,670
후원금 수입	지정후원/행사후원	150,000		대구시 사회단체보조금	2,800,000
	일반후원금	9,433,361		대구시 조례	2,000,000
	CMS	5,780,000		노동부 민간협력사업	6,872,300
	소 계	73,500,000		경상북도 사회단체보조금	3,000,000
전입금/ 접수입	법인전입금	5,861,440		새터민정보화교육사업	1,641,730
	예금이자	7,447		지역적응교육 하나센터	50,703,275
	기타 접수입	1,011,220		지역사회통합프로그램개발(조직화)	1,029,300
	소 계	28,905,370		연대사업(무지개쿨)	160,000
전월 이월금		52,934,308		소 계	73,839,437
			후원금	지정후원금	130,000
				소 계	130,000
			잔 액		58,907,104

* 고맙습니다

대구쪽방상담소

(2009.7.1~2009.10.31)

작은 마음 나누어

큰 보탬을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든든한 후원자>

구봉주 구선화 권우현 김기환 김동현 김미정 김봉환 김상금 김상현 김성팔
 김성호 김승록 김시환 김영자 김유성 김윤정 김인수 김일회 김잠숙 김종훈
 김진국 김천호 김학수 김현숙 김현준 김희준 남길식 박귀자 박명숙 박선배
 박소연 박소현 박연경 박지수 박현수 박흥배 박희웅 백정현 서병철 서재희
 손혁수 송영규 송정옥 신상욱 신은정 양정희 염희자 오메삭 오진미 원동건
 유재덕 윤지례 이국로 이경미 이경희 이관태 이동욱 이명숙 이상록 이 수
 이수남 이승미 이승민 이시온 이신영 이애자 이은경 이임희 이재심 이종돈
 이주연A 이주연B 이주하 이준호 이지현 이창현 이태수 임경범 임동훈 임해진
 전미경 전인규 정광옥 정대식 정명숙 정석찬 정재훈 정희영 조선국 조 웅
 진효림 천병우 천윤종 최민우 최병우 최윤종 현무용 홍수경 홍창영 황은영
 황진니 김현익 지민겸 이경희 김영희 해피빈 이마트
 류현지(약손약국) 광민복지재단 한국전력대구경북본부 중구안경사회

<물품후원>

- 김봉용 - 백미 20kg 5포 • 평화산업 - 어백미 20kg 53포
- 동대구농협아리봉사단 - 생필품(라면,치약) 120세트
- 동구자원봉사센터 - 종합선물세트 40세트, 쌀 30kg, 김치 100박스(5kg)
- C.F.S 유통업체 - 쌀 20kg 10포, 10kg 5포 • 대봉교회 - 라면 40box
- 별을가꾸는 사람들 - 의류 후원(50벌)
- 민주당 대구 서구 지역 위원회 - 난방유 140만원
- 파티마병원 사회 사업팀 - 의류 300벌 후원
- 영진전문대 - 김치 150만원상당 500포기

수 입			지 출		
합 계		145,740,969	합 계		145,740,969
사업 수입	명절특식사업	600,000	사무비	인건비	50,654,630
	기획사업	1,000,000		운영비	9,880,390
	공동부업사업	3,004,140		업무추진비	2,591,500
	프로그램신청사업	2,500,000		소 계	63,126,520
	경과적일자리창출	6,036,190	사업비	직업재활사업	3,004,140
	소 계	13,140,330		생계지원사업	23,558,860
보조금 수입	보조금수입	103,780,000		기타사업	1,176,000
	후원금수입	10,915,163		프로그램신청사업	2,646,100
	소 계	114,695,163		화랑자활사업	3,495,480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12,299,032		주민자치사업	5,361,518
접수입	예금이자수익	444		폭염대책지원금	2,767,030
	기타 접수익	2,100,000		경과적일자리창출	6,036,190
	소 계	2,100,444		소 계	48,045,318
전입금	법인전입금	3,506,000	잔 액		34,569,131
	소 계	3,506,000			

* 후원자 명단에서 이름이 빠졌거나, 이름이 잘못 기재된 분이 있으시면 법인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이마트영수증을 모아주세요

모아주신 영수증 금액의 0.5%가 저희기관에 적립됩니다.
이마트에 배치 된 적립기에서 저희기관을 선택해서 적립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1개월 이내의 영수증을 모아 우편이나 직접전화를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적립하겠습니다. 아무렇게나 버려지던 영수증이 모여 큰 물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작은 겨자씨 하나가 땅에 뿌려져 큰 숲이 됩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 주변을 생각하는 마음들을 모아 주십시오.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길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후원하시는 방법

ㄱ. 직접은행에 가서 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은행	141-05-001390-3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법인)
대구은행	007-04-000442-7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대구쪽방상담소)
대구은행	038-05-002942-4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북한이주민지원센터)
대구은행	034-10-004274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주민도서관)

ㄴ. CMS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금융결제원을 통해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전화(053-356-0464)나 인터넷(www.vongsa.org)을 통하십시오.

물품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쪽방거주인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동내의, 김장, 라면, 쌀 등을 후원해 주세요.
- ▶ 쪽방거주인과 북한이주민에게 냉장고, 세탁기, 옷 등의 물품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 만평주민도서관 책장을 꽉꽉 채울 '책'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대리운전을 이용해주세요.

053-665-6688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면 1,500원이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으로 후원됩니다.
안전귀가! 사랑 나눔! 665-6688 대리운전을 이용해주세요~
생활 속에서 우리 이웃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사업에 동참해 주세요.

▶ 안동 길안 사과 / 사과즙 / 배즙 / 대추즙 / 상주곶감

판매하는 농산물은 모두 직거래를 통해 공급받고 있습니다. 보다 질 좋고 맛있는 상품을 만나고 지역의 이웃과 사랑도 나누신다면 1석 2조겠지요?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 예약 문의 : 053-356-0465



세상의 크고 작은 변화들,
당신들이 ^왕주인공입니다.

